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63/2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0학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에서 외부성이란 A의 행동이 B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쳤는데, A가 B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배상을 하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예를 들어 꽃을 재배하는 화훼업자가 의도와 무관하게 꿀을 채취하는 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상황이나 공장에서부터 배출된 오염 물질이 의도와 무관하게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민에게 피해를 ④ 주는 상황을 말한다.

경제학자들에게 외부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피해나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피해나 이익이 사회적 최적 수준, 즉 양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염 물질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게 일어난다는 것은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한 공장의 이익이 어민의 피해보다 크다는 것이며,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일어난다는 것은 오염 물질의 배출 감소를 위해 생산을 줄인 공장의 피해가 어민의 이익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부성과 사회적 최적 수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코즈는 외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A의 행위가 외부성을 유발하여 B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자. 만일 A와 B 중 누구에게 재산권이 있는지가 명확히 확정된다면, 각 경제 주체가 교섭을 하는데 드는 비용인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는 재산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만큼 이루어진다.”

이러한 코즈의 정리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우선 외부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과 관련한 중요한 기준인 상호성을 일깨워 준다. ② 강물에 오염 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인해 공장과 어민 간에 다툼이 일어난 사례를 생각해 보자. 많은 사람들은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공장이 문제의 원천이며, 공장에 제재를 가하여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코즈는 오염 물질 배출이라는 행위가 문제의 원천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한다. 원인만을 놓고 보자면 오염 물질 배출이 문제가 아니라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강에서 고기를 잡는 행위가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공장 바로 옆에서 어민이 고기를 잡지 않는다면 외부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코즈는 외부성이 존재하는 문제를 ① A와 B 사이에 상호적 성격을 지닌 문제라고 보았으며 “A가 B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함은 곧 A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문구로 이를 피력하였다. 이것을 개념화한 것이 상호성이다. 상호성이란 두 경제 주체는 대칭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익이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감소시키므로 결국 손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성 문제에서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나 피해자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두 번째 함의는 재산권을 명확히 한다면 외부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이다. 불분명한 권리관계가 분쟁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에 재산권 부여를 통해 외부성이 내부화된다면 경제 주체들은

통상적인 협상과 계약을 수행할 것이고, 그 수행에 따르는 거래 비용이 없다면 외부성으로 발생한 문제는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해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과 어민의 사례는 강물의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아 생긴 문제이므로 강물에 대한 재산권을 확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를 들어, 강물에 대한 재산권이 어민에게 있다면 공장은 오염 물질 배출을 할 때 어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장이 어민에게 보상을 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양자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염 물질 배출 수준을 정할 것이다. 반대로 강물에 대한 권리가 공장에게 있다면, 어민은 공장에 보상을 통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요청함으로써 물고기의 수를 늘리고자 할 것이고, 오염 물질 배출은 양자가 만족하는 수준만큼으로 조정될 것이다.

그러나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황 설정으로 인해 코즈의 정리는 비판을 받는다.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갈릴레이가 운동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할 때 마찰이 없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갈릴레이는 마찰이 없는 세계에서 어떤 공에 힘이 가해지면, 그 공은 무한히 굴러갈 것이라는 가정을 통해 현실에서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공이 무한히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코즈의 가정도 ㉠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코즈의 정리는 법경제학과 관련이 된다. 바로 ‘외부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은 누구에게 재산권을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가능하다. 첫째는 아무에게나 주면 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재산권 확정이 최종 생산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 분배에는 영향을 미친다. 정당한 근거에 따라 재산권을 할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배의 정의를 추구하는 법질서를 뒤흔드는 일이 된다. 이로 인해 재산권 부여의 문제는 법적 정당성이 있는 측에 재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는 외부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전제와 법 원리에 따른 재산권 확정이라는 접근 방식이 서로 배치된다는 이율배반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기존 법 원리가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기존의 법리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효율성이라는 기준이다. 즉 재산권 배분 이후 귀결될 결과를 사회적 차원에서 비교해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재산권 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재산권 확정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을 고려한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법적 판결을 할 때는 경제적 효율성 외에 다른 원리들 역시 재산권 확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코즈의 정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거래 비용이 충분히 낮은 상황에서는 형평성이나 도덕성에 기초한 입법이나 판결이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비용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추구할 만한 가치라면 그것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④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대상을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가 B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B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
- ② A가 B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A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 ③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A의 손해가 증가할 것이다.
- ④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B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 ⑤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A와 B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

23. 코즈의 정리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공장이 7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매연 방지 시설 설치하지 않아, 매연이 방출될 경우 주민들이 100만 원의 피해를 입을 상황이 되었다. 이에 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장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인 공해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결해야 한다. 환경권을 인정하고 공해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장은 매연 배출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100만 원의 피해액을 보상하든가 70만 원을 들여 매연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당연히 방지 시설을 갖추는 것이 30만 원을 버는 것이 된다. 반대로 환경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해권을 인정한다면 주민들은 100만 원의 피해를 감수하든가 70만 원을 들여 공장에 매연 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하며 당연히 매연 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30만 원을 버는 것이 된다. A 공장과 주민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협상에 임하기로 하고 법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① A 공장이 매연을 유발하는 주체이므로 매연으로 인한 피해나 이익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게 하기 위해 법원은 환경권을 인정해야 하겠군.
- ② 만약 법원이 공해권을 인정했는데 주민이 A 공장과 협상하는데 드는 비용이 40만 원이라면 주민은 매연 방지 시설 설치를 포기하고 100만 원의 피해를 감수하려 하겠군.
- ③ A 공장이 100만 원의 피해액을 보상하는 방식과 주민이 70만 원의 설치비용을 들여 매연 방지 시설을 갖추는 방식은 모두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만약 법원이 환경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후 A 공장이 주민과 협상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만 원이라면 공장은 매연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20만 원의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겠군.
- ⑤ 거래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과 주민이 협상을 한다면 비용 부담의 주체만 달라질 뿐 매연 방지 시설은 갖추어진다는 점에서 매연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준에서 해결되겠군.

24.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 세계를 통해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가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 ②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힘들다.
- ③ 거래 비용이 없는 가상의 세계를 상정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도 거래 비용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 ④ 거래 비용이 없는 세계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세계이므로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힘들다.
- ⑤ 실제 세계에서도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 비용이 없는 가상의 세계를 상정해서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25. [A]를 바탕으로 ㉢에 대한 토의 활동을 하였다.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래 비용이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재산권을 주든 외부성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해결되지 못할 수 있겠군.
- ② 강물에 대한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아 생긴 문제이므로 이를 재산권 부여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율배반적인 시도일 수 있겠군.
- ③ 환경 보호라는 가치가 추구할 만한 가치라면 외부성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어민에게 재산권을 줄 수 있겠군.
- ④ 재산권을 어민에게 주면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일어나겠군.
- ⑤ 공장이 재산권을 가져서 얻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익이 어 민이 재산권을 갖지 못해 생긴 피해보다 크다면 효율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장에 재산권을 줄 수 있겠군

26. ㉣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에게 어떤 역할 따위를 가지게 하다.
- ②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 ③ 시간 따위를 남에게 허락하여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 ④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
- ⑤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